

3110 배영진

엄상섭 <두 파산>

[등장인물] 정례 모친, 김옥임, 교장, 정례 아버지, 정례

↳ 수특 수록 부분 주요 등장인물

정례모친 :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차리지만 빚을 지다 결국 교장 딸 내외에게 가게를 넘기게 됨.

김옥임 : 정례 어머니와 함께 신교육을 받았지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세속적인 생활을 함.
정례 어머니에게 열등감을 느낌.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 자기보다 딸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교장 영감 : 전직 교장인 고리대금업자. 옥임과 합세해 정례 어머니로부터 이자를 뜯어냄.

정례 아버지 : 택시기사를 나서지만, 실패함. 옥임을 속일 생각에 즐거워 함.

[전체 줄거리]

해방 직후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 정례 모친은 은행에서 3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문방구를 차린다.

이후 가게에 더 많은 물건을 들고자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동창생인 김옥임의 제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며 동업조건으로 10만 원의 빚을 지게 된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팔아 택시를 시작한 남편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문방구의 빚은 점점 더 늘어간다. 정례 모친은 이를 수습하고자 옥임을 통해 알게 된 '교장 선생'에게 또 5만 원 빚을 진다.

이후, 옥임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교장 선생을 앞세워 받아내려 하고, 정례 모친은 은행 30만 원, 옥임 20만 원, 교장 5만 원, 도합 5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어느 날, 정례모친은 향토현 버스 정류장에서 옥임을 마주치는데 옥임이 싸움을 일으킴으로써 망신을 당한다.

계속 쌓여가는 빚과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한 정례 모친은 돈을 갠 후 결국 문방구를 교장 딸 내외에 넘기고 알아늬는다.

< 내용 정리 >

[주제] - 물질적, 정신적 파산에 이른 인간을 통한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비판

[배경] - 시대적: 광복 직후(1940년대 후반) / 공간적: 서울 황토현 근처
↳ 해방 직후 사회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임.

[성격] : 사실적, 세태 비판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징]

- 물질적 파산과 정신적 파산을 통해 해방 직후 혼란한 세태를 드러냄

두 파산	물질적 파산	<p>정례 모친 - 물질적 파산을 의미하는 인물 생계를 위해 문방구를 차리지만, 매정한 친구와 탐욕적인 교장으로부터 빚을 독촉받고 결국 가게를 빼앗김.</p> <p>↓</p> <p>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시민이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몰락해 감 → 물질적 파산</p>
	정신적 파산	<p>김옥임 - 정신적 파산을 의미하는 인물 예술에 흥미를 보이던 과거와 달리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친구 옥임이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가게를 빼앗음.</p> <p>↓</p> <p>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감 → 정신적 파산</p>

두 파산 - 염상섭

©방시영

핵심 정리

시간: 광복 직후 194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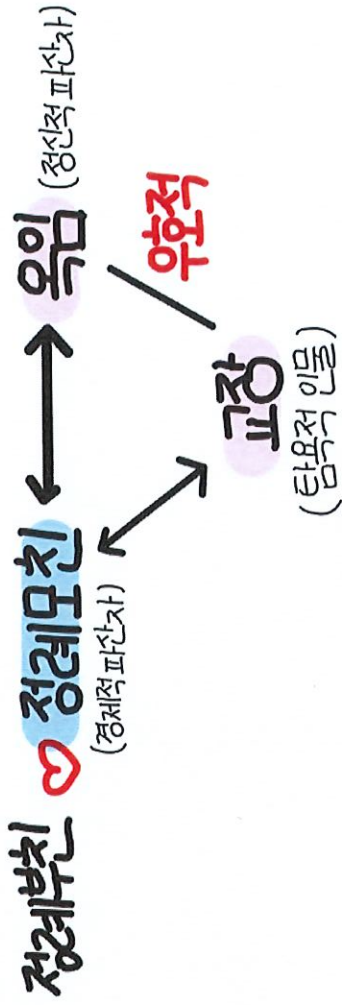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징: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의 심리와 태도를 실감나게 표현

-정례 모친과 옥임의 경제적, 정신적 파탄을 중심으로 대조적으로 구성함

주제: 물질적, 정신적 파산에 이르는 인간을 통한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비판

등장인물



줄거리

1. 해방 이후 정례 모친은 경제적으로 무능력 한 남편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 문방구를 차림.
2. 가게를 차린 후 가게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 과거 동창생인 김옥임에게 빚을 지게 됨.
3. 새롭게 시작한 남편의 자동차 사업이 실패하면서 옥임에게 진 빚의 이자마저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처지에 이를.
4. 옥임은 전직 교장을 대리인 삼아 정례 모친에게 돈을 받아 내려 하고 길거리에서 심한 창피까지 받게 됨.
5.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정례 모친은 문방구를 처분하여 빚을 갚은 후 앓아 눕고, 남편은 자동차를 이용해 옥임에게 사기 칠 공리를 함.

제목: 두 파산

-경제적 파산(정례모친): 돈을 벌며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무너지는 서민의 모습

-정신적 파산(옥임):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결국에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정신적으로 파산하는 계층

[두 파산] _ 염상섭

3305 김하영

작품소개

광복 직후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적 혼란기를 살아가는 두 여성을 통해 배금주의로 흘러가는 세태를 비판하고자 한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이다. 작가는 두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평가를 배제한 채,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례 모친과 옥임의 파산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갈래 : 단편소설, 세태소설, 사실주의 소설 성격 : 사실적, 묘사적
배경 : 광복 직후, 서울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광복 직후 사회적 혼란기의 물질적, 정신적 파산자들의 삶과
물질 만능의 세태 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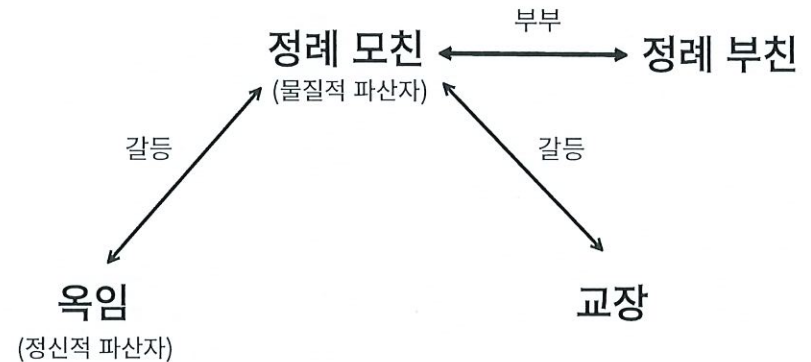
특징 : 1. 만연체의 문장을 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함.
2. 두 인물의 물질적, 정신적 파산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냄.
3. 자연주의적 인생관과 사실주의적 창작태도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
4.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실감있게 그림.
5. 풍부한 경기 지역 사투리를 능란하게 구사하여 현실감이 돋보임.

줄거리

발단 : 해방 이후 정례 모친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 문방구를 차림.
전개 : 가게를 차린 후 가게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 과거 동창생인 김옥임에게 빚을 지게 됨.
위기 : 새롭게 시작한 남편의 자동차 사업이 실패하면서 옥임에게 진 빚의 이자마저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처지에 이름.
절정 : 옥임은 전직 교장을 대리인 삼아 정례 모친에게 돈을 받아 내려 하고 길거리에서 심한 창피까지 주게 됨.
결말 :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정례 모친은 문방구를 처분하여 빚을 갚은 후 앓아눕고, 남편은 자동차를 이용해 옥임에게 사기 칠 궁리를 함.

인물 소개

- 경제적 파산자 정례 모친 : 일본 유학까지 했지만 빚을 얻어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차려 생계를 꾸려 나간다.
- 친구 옥임 : 정례 모친과 오랜 친구이지만,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로 변하여 친구인 정례 모친의 가게마저 차지하려는 정신적 파산자이다.
- 교장 : 시골학교 교장을 지낸 고리대금업자이고, 정례 모친의 문방구를 차지하기 위해 옥임과 함께 과도한 이자로 결국 문방구를 차지하게 된다.
- 정례 부친 :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생활력 없지만 젊고 잘생긴 남편이고 부인인 정례 모친에게 정성을 다하는 낙천가이다.



* 등장인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목의 의미

- 물질적 파산 : 정례 모친은 물질적인 파산을 의미하는 인물이며,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소시민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정신적 파산 : 김옥임은 정신적 파산을 의미하는 인물이며,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결국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정신적으로 파산하는 계층의 모습을 드러낸다.

두파산

3415 이태은

주제

- 물질적, 정신적 파산에 이른 인간을 통한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비판

갈래 : 단편 소설, 세태소설, 시정소설

성격 : 사실적, 세태 비판적

배경 : 해방 직후, 서울 황토현 부근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징

- 복합적인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여 인물을 입체적으로 드러냄
-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함
- 물질적 파산과 정신적 파산을 보여 주어 해방 직후의 혼란한 세태를 드러냄

줄거리

-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꾸려 나가는 정례 모친은 집문서를 은행에 잡혀 얻은 30만 원으로 가게를 시작했으나 운영이 여의치 않아, 동창인 김옥임의 동업 조건으로 10만 원 밀전을 빌리게 된다. 게다가 정례 아버지가 물려받은 마지막 땅을 팔아서 부리던 택시가 가게의 돈을 술술 빼가다가 결국 거덜을 내자 경제적 상황은 더욱 웅색해진다. 일제 강점기 때에 고관으로 행세하다 광복과 함께 반민법으로 몰락할 처지에 놓이고 중풍마져 앓게된 남편을 둔 옥임은 고리대금업자로서 친구인 정례 모친에게까지 마수를 뻗친다. 옥임은 가게 보증금 영수증을 담보로 출자금을 1할 5푼의 이자 돈으로 돌려 제 살 궁리만 한다. 정례 모친은 옥임을 통해 알게 된 교장 선생이라는 영감에게서 5만 원을 더 빌려 가게의 형편을 수습하려 하지만, 옥임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교장 영감에게 일임하여 정례 모친이 이를 갚도록 만든다. 은행에 30만 원, 옥임에게 20만 원, 교장 영감에게 5만 원, 도합 55만 원의 빚을 걸머진 정례 모친은 어느 날 황토현 정류장에서 만난 옥임에게 망신을 당한다. 두 달에 걸쳐 억지로 얼마간의 빚은 갚았으나, 급기야 석 달째에는 보증금 8만 원마저 되찾지 못한 채 빚으로 메우고 구멍가게를 교장 영감의 딸 내외에게 넘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몸살감기에 율화로 누운 정례 모친을 위로한답시고 정례 아버지는 옥임을 골릴 궁리를 하며 껄껄 웃는다.

작품의 구조

발단 - 교장이 정례 모친을 찾아와 그녀가 옥임에게 진 빚을 자신이 대신 받기로 했음을 알림

전개 - 해방 직후, 정례 모친은 생계를 위해 은행 돈을 빌려 문방구를 차리지만 장사가 어려워지자 친구인 옥임에게 돈을 빌림

위기 - 정례 모친은 남편의 택시 사업이 실패하고 장사도 실통치 않아 옥임에게 빌린 돈의 이자마저 못 갚는 지경에 이름

절정 - 옥임은 우연히 만난 정례 모친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망신을 주지만 사실은 정례 모친에게 부러움을 느낌

결말 - 정례 모친은 가게를 팔아 빚을 갚으며 옥임의 정신적 파산을 한탄하고, 남편은 옥임에게서 돈을 찾아 주겠다며 정례 모친을 위로함

등장인물

정례 어머니 - 남편의 사업실패로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차리지만 빚을 지다 보니 결국은 교장 딸 내외에게 가게를 넘기게 되는 인물이다. 물질적 파산을 보여주고 있다.

정례 아버지 - 옥임을 속여서 집문서를 찾을 궁기를 하며 즐거워한다.

옥임 - 정례 어머니와 함께 신교육을 받았지만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세속적인 생활을 한다.

정례 어머니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정신적 파산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옥임의 남편 - 친일파 고위 관리

교장 - 전직 교장인 고리대금업자이다. 옥임과 합세해 정례 어머니로부터 이자를 뜯어내 결국에는 정례 어머니를 파산하게 만든다.

작품 속 갈등

내적 갈등 - 정례 어머니의 옥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집을 잃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섞인 갈등이 존재한다.

외적 갈등 - 정례와 옥임의 갈등, 정례 어머니와 옥임의 갈등, 정례 어머니와 교장의 갈등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정례와 옥임의 경우 학창 시절의 꿈을 잃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옥임과 순수한 이상을 간직하고 있는 정례 사이의 갈등이 있다. 정례 어머니와 옥임은 돈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발생한다. 옥임이 행복한 정례 가족을 시기해 갈등이 심화된다. 정례 어머니와 교장과의 사이에는 속물적인 교장과 세상에는 인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다.

‘두 파산’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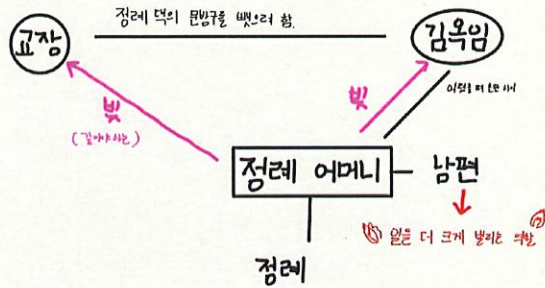
이 작품은 갖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적인 무능력에 의해 파산한 정례 모친과 물질 만능주의에 적응하고 정신적으로 파산한 김옥임 두 사람 모두의 파산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광복 직후, 가치관의 혼란 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삼의 모습을 그려 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170p. 「두 파산」 영상법

35/2 이승연

두 파산 : 정례 모친의 **물질적 파산**과 고리대금업일을 하는 김옥임과 교장의 **정신적 파산**을 의미함.

인물관계도



{두 파산}은 해방 직후 혼란 시기를 배경으로 두 파산을 겪는 두 인물을 통해 당시 물질주의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다.

줄거리

발단: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는 정례의 어머니한테 전에 교장을 했던 영감이 변리 이자를 받으려와 밀린 것 중 한달 치 만을 받아 가면서 김옥임의 빚 20만원도 갚으라고 함. 이 20만원은 김옥임과의 동업의 조건 하에 썼던 10만원이 빚으로 둔갑함.

전개: 정례 모친은 생활이 어렵게 되자 30만원을 은행에서 얻어 문방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 당시 친구였던 김옥임에게 손을 벌리게 됨.

위기: 집에 있던 남편이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아 택시를 운영하며 도리어 문방구의 돈을 돌려쓰고 갚지 못하게 되자 교장 영감의 돈 5만원도 빌려쓰게 됨. 김옥임은 이익금으로 20만원을 챙기고도 동업자금을 빚으로 만들어 버리고 교장과 손을 잡고 문방구를 뺏으려고 함. 20만원은 김옥임에게 빚졌으니 그녀에게 갚겠다고 함.

절정: 일주일 후 정례 어머니는 정류장에서 김옥임을 만나게 되고 길거리에서 창피를 당하게 됨. 김옥임은 전에 도지사였던 남편을 만났지만 중풍으로 누운 남편과 살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고리대금업자로 일하게 됨. 그래서 김옥임은 젊은 남편과 자식을 가진 정례 어머니에 대한 열등 의식이 있어 은연중 화풀이 하는 면이 있음.

결말: 정거장 일이 있었던 다음날 옥임의 말을 듣고 온 교장에게 정례 어머니는 자신은 물질적 파산자이고 옥임은 정신적 파산자라고 말하며 20만원 표와 현금 2만원을 옥임에게 주라고 함.

두 달 후, 교장의 빚은 갚았으나 석 달째 문방구는 교장의 이복에서 내려온 딸에게 넘어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김옥임은 값을 더 얹어 이익을 보았고 정례 어머니는 빈손으로 나감.

(두 파산)

연상성

3612 유수현

이 작품은 해방 직후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물질적·정신적인 파산을 겪는 두 인물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파괴되고 물질만능의 가치관이 막연하여 있는 당대의 사회상을 풍자한 소설

[발달]

정려 어머니한테 전에 교장을 했던 영감이 이자를 받느라와 김옥임의 빚 20만원도 갚으라고 함

[전개]

정려 모친, 생활이 어렵게 되자 남편을 쫓아 집을 잡히고 30만원을 은행에서 얻었지만, 장사가 어려워져서 정려 모친은 친구인 옥임에게 빚을 얻어 가게 운영

[위기]

정려 아버지의 자중차 사업 실패하고 정려 모친의 가게도 실통치 않아서 옥임에게 빌린 돈의 이자마저 못 갚는 지경까지 온다.

[절정]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정려 모친에게 옥임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양식을 주는데 실상은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정려 모친을 부러워하고 권유를 느꼈기 때문에 정려 모친에게 양식을 주었다

[결말]

정려 모친은 결국 가게를 처분하여 빚을 갚고 옥임의 성적파탄을 한탄하지만, 그의 남편은 옥임으로부터 그 돈을 찾아주겠다고 그녀를 위로한다.

갈래: 단편 소설, 서태 소설

성격: 사실적, 서태 비판적

배경: ① 시간 - 해방직후 ② 공간 - 서울 황토현 부근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해방 직후 혼란기에 물질적·정신적으로 파산한 인간의 모습 풍자

특징 ①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의 심리와 태도를 민감하게 묘사함

② 경기 지역의 방언을 음란하게 구사하여 현실감을 돋보이게 함

③ 정려모친과 옥임의 경제적, 정신적 파탄을 중심으로 대조적으로 구성

④ 개관적으로 서술

정려 어머니

소름하고 앞에서 문방주전을 차려놓고 생계를 유지하지만 여의치 않아 빚을 지고 결국 친구인 김옥임에게 가게를 넘긴다

김옥임

신교육을 받은 인물이지만 관복을 고리 대금업을 시작하면서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정신적 파탄자

정려 아버지

가난하면서도 외 작은 나라를 위해 정치 입선에 나서기도 한다

교장

김옥임의 부탄으로 정려 어머니로부터 가게를 빼앗는 일을 도와주며 자신의 실속을 하라는 인물이다.

